

국문초록

Resumen en coreano

김 주 리 (Ju Li Kim)

서어서문학과 (Hispanic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 들어가기

호칭어란 일반적으로 의사 소통 시, 화자가 청자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어구 또는 표현들을 의미하며(왕한석 2005), 대화자들의 관계 속에서 갖는 사회적 위치를 상징한다. 특정한 호칭어 사용에 따라 화자가 상대방에 대해 갖는 지위를 쉽게 식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나타내는 언어적 장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핵심적 구성성분이라 할 수 있다(박정운 2005).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호칭어 중 2인칭 대명사 단수 형태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호칭어는 존칭형태와 친칭형태로 나뉘며, 스페인어의 2인칭 대명사 단수 체계는 이분법 (*tú y usted*), 포르투갈어에서는 삼분법 (*tu, você y o senhor*)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호칭어 체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는 로망스

어에서 파생된 언어이므로 2인칭 대명사의 사용법이 비슷할 것이다. 둘째, 스페인과 멕시코의 2인칭 대명사 사용법이 서로 다르다면, 포르투갈과 브라질 역시 다를 것이다. 셋째, 중남미 국가들은 동일한 대륙에 위치하므로 호칭어 사용 체계가 유사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가설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중 5개국 -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을 선정하여 각 나라의 호칭어 사용 양상과 언어와 지역에 따른 호칭어 사용 체계를 대조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와 실제 구어 상황을 반영하는 장르인 영화 분석이다.

2.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2인칭 대명사 호칭어 체계

DRAE (2010)에서 스페인어의 2인칭 대명사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스페인어의 2인칭대명사는 유일하게 라틴어에 존재했던 격이 남아있는 단어으로써, 2인칭 대명사로는 단수형태인 *tú, vos, usted*, 복수형태인 *vosotros, vosotras, ustedes* 가 존재한다.

호칭어의 경우, 의사 소통 시 발화자가 대화자 또는 청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며 서로가 지닌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또한 호칭어의 사용은 사회적, 상황적,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특징을 지닌다. 기본적인 형태로 *tú* 와 *usted*이

있으며 *tú*는 친칭 대명사, *usted*은 존칭 대명사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tú*는 가족, 동료,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되지만, 오늘날 *tú*가 *usted*의 사용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의사와 환자, 선생님과 학생의 사이에서도 사용된다. Tuteo의 경우 라틴아메리카보다 스페인에서 더 발달되었고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지역에서는 2인칭 단수 형태가 *tú, vos, usted* 으로 구분된다. 이때 *vos*의 사용은 단일 청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며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는 *vos*가 *tú*보다 깊은 신뢰 관계를 나타낸다. 스페인어의 2인칭 대명사 체계는 다음과 같다.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tuteo		tú - vos		voseo	
	친칭	존칭	친칭	존칭	친칭	존칭	친칭	존칭
단수형	<i>tú</i>	<i>usted</i>	<i>tú</i>	<i>usted</i>	<i>vos/ tú</i>	<i>usted</i>	<i>vos</i>	<i>usted</i>
복수형	<i>vosotros</i>	<i>ustedes</i>	<i>ustedes</i>		<i>ustedes</i>		<i>ustedes</i>	

표1. 스페인어의 2인칭 대명사 체계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포르투갈어의 2인칭 대명사 체계는 스페인어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Azevedo (2005) 에 따르면, 포르투갈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삼분법으로 나뉘며, *tu*는 친칭형, *o senhor/ a senhora*는 존칭형, 그리고 *você*는 친칭형과 존칭형의 중간 단계의 기능을 한다. 반면, 브라질에서는 친칭형태 *você* 와 존칭형태 *o senhor/ a senhora* 가 사용되며, 브라질의 몇몇 지역에서는 친칭 형태로 *você* 대신 *tu* 형태를 사용하거나, *você* 와 *tu*를 함께 2인칭 대명사 친칭 형태로 사용하기도 한다.

포르투갈	
칭칭	<i>tu</i>
칭칭-존칭	<i>você</i>
존칭	<i>o senhor/a senhora</i>

브라질	
칭칭	<i>você</i>
존칭	<i>o senhor/a senhora</i>

표2. 포르투갈의 2인칭 대명사 체계

오늘날까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호칭어 체계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분석 결과가 학자에 따라,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이하며, 언어간 그리고 지역간의 호칭어 사용 체계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언어를 함께 분석하여 언어별, 지역별 차이를 대조 비교하고자 한다.

3. 공손성과 호칭어

Morales (2010)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호칭어 체계는 화용론적 측면과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각각의 측면에서 공손성 이론과 Brown 과

Gilman의 권력과 연대감이라는 두 요소를 가지고 호칭어 사용 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공손성 이론에서 말하는 공손이란 다음과 같다. 화자와 청자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경우 우리는 모든 언어적 수단을 사용하여 공손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공손성이란 화자와 청자간의 갈등을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화상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공손성은 Grice (1975)가 협력의 원리를 제안한 이후 공손성의 관한 여러 이론들이 발전하였다. 먼저 Grice는 대화의 협력원리의 목적이 정보의 효과적인 소통이라는 목표로 두고 있으며, 공손성은 사회적 관계에 관련된 전략이라고 이야기한다. 대화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이 요구되는데 사회적 관계의 유지가 우선시 되는 경우에는 공손성의 전략이, 정보의 효과적 전달이 우선시 되는 경우에는 대화 협력 원리의 전략이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언어의 공손법 사용의 원인과 그 작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Brown과 Levinson의 이론 (1978)이 있다. 그들은 Grice의 모델에 대인관계의 측면을 가미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합리성과 체면을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자질들로 보았다. 합리성은 모든 개인이 이성을 통해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고 체면이란 모든 개인이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공손성과 연결되어있다. 체면은 Brown과 Levinson의 이론의 핵심적 개념으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공손 전략이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체면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 소극적 체면이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또한 타인에 의해 강요 받지 않으려는 욕구로써 소극적 체면은 무례함의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소극적 공손성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적극적 체면은 반대로 타인이 자기를 받아들이고 좋아해주기를 바라는 개인의 바램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면은 일반적인 공손 개념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로 볼 수 있으며 청자와의 유대감을 강조하는 전략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체면의 개념 자체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지만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 문화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사 소통 속에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Brown 과 Gilman (1960)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Brown 과 Gilman의 호칭어 연구의 목적은 유럽 여러 언어 -특히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에서 나타나는 2인칭 단수 대명사의 사용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Brown과 Gilman은 2인칭 대명사를 T 계열의 대명사와 V 계열의 대명사로 구분하여 대명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세시절부터 18세기까지 2인칭 대명사는 대화자들 사이에 대등하지 않는 권력 관계를 상징하는 지표였다. 권력의 면에서 상위자는 하위자에게 T를 사용하였고, 하위자는 상위자에게 V를 사용하였다. 또한 동등한 권력 관계에서는 상층계급끼리는 V를, 하층계급끼리는 T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권력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신체적 강함, 부, 연령, 성별, 그리고 교회·국가·군대·가족 내에서 제도화된 역할 등이 권력의 요소에 해당한다. 19세기에 들어서 권력 이외에 T와V의 대명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대감이 발달한다. 연대감은 사회적 친근감과 결속을 반영하는 지표로써 가족, 종교, 직업, 출생지 등이 연대감의 요소이다. 처음에는 권력 관계가 동등한 사람들간의 호칭을 구분 짓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비슷한 권력 관계에서 연대감이 있다면 서로 T를 교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V를 교환하는 대칭적이고 상호적 방향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권력상 상위자이더라도 연대의 관계에 있는 청자에게는 T를 사용, 권력상 하위자이지만 비연대의 관계에서는 V를 사용하였다. 근세에 들어 연대감의 차원은 전체적으로 권력의 차원을 압도하였다. 다시 말해 권력의 차원이 연대감의 차원으로 지배적인 의미 원리가 이동한 것이다. 그에 따라 연대감이 T/V를 구분 짓는 단일한 차원으로 자리잡은 이래 T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었다. Brown 과 Gilman의 연구는 친밀감을 나타내는 T 계열의 대명사와 공손함을 나타내는 V 계열의 대명사로 분리하여 T/V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권력과 연대감을 제시하였다. 권력과 연대감이라는 두 차원의 사회적 의미를 이용하여 유럽의 언어들의 2인칭 대명사 사용을 규정하는 일반 원리를 찾아냈지만 호칭어 선택에 관여하는 요소를 지나치게 일반화 그리고 단순화 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4. 설문지 분석 결과 와 영화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실제 사용되는 호칭어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설문지와 실제 구어와 가장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는 영화를 선별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교차분석과 빈도 분석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험 대상과 실험 절차로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직접 설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대상인 5개국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의 최신 영화들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호칭어 사용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지 분석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설문지의 경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6가지 변인을 추출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변인들은 화자와 청자의 성별과 나이,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거리 그리고 장면이다. 그리고 가족, 학교, 직장, 거리, 공공장소가 장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114명의 설문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스페인 45명, 멕시코 13명, 아르헨티나 6명, 포르투갈 12명 그리고 브라질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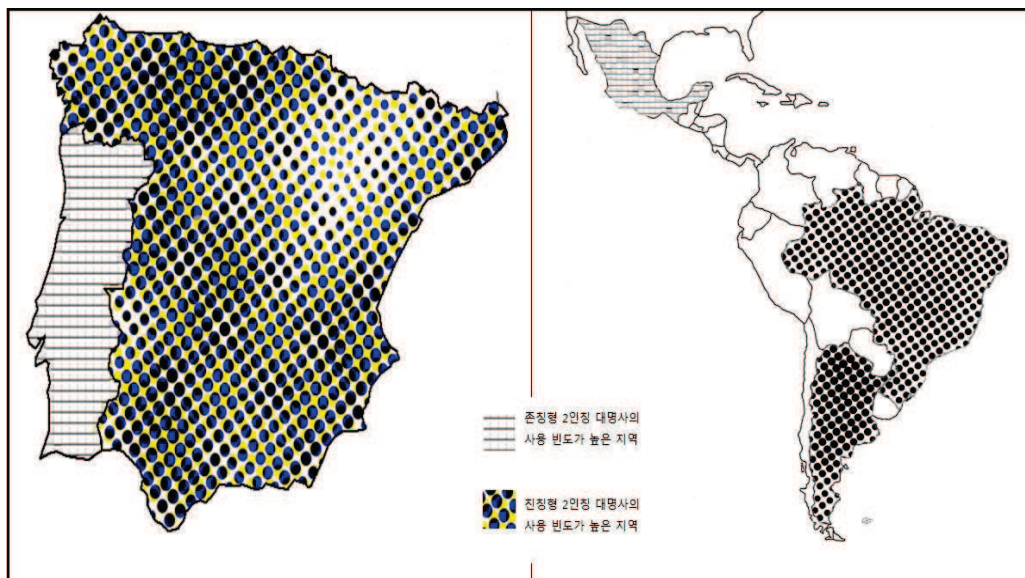
가족 관계에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화자들이 멕시코와 포르투갈의 화자들보다 친칭형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지칭할 때 스페인과 브라질에서는 친칭형태의 2인칭 대명사, 멕시코와 포르투갈에서는 존칭형태의 대명사가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설문 대상자가 대부분 선생님들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존칭형태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장내에서 상사를 지칭할 경우, 스페인,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화자들은 친칭형, 멕시코와 포르투갈의 화자들은 존칭형의 대명사를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청자가 나이가 많은 직장 동료일 때 역시 스페인,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는

친칭형태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 포르투갈에서는 존칭형태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멕시코에서는 친칭형태가 존칭형태보다 더 많이 사용되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존칭형태의 사용빈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리에서 젊은 청자를 지칭할 경우, 친소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다수의 화자들은 친칭, 멕시코와 포르투갈의 화자들은 존칭형태를 선택했으며 마지막으로 공공장소에서 젊은 청자를 지칭할 때 역시, 스페인,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대다수의 화자들은 친칭형태, 멕시코와 포르투갈의 화자들은 존칭형태를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영화 분석에 대한 결과이다. 4편의 스페인어 영화를 분석한 결과,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 간에는 친칭형태, 처음 만난 모르는 사이의 경우 존칭형태를 사용함을 확인하였으며 친소관계가 없는 이웃 간 또는 상사와 직원간에도 친칭형태를 사용함을 발견하였다. 반면 4편의 멕시코 영화를 분석한 결과, 친소 관계가 있는 이웃 사이거나 같은 종교 모임의 사람들, 집주인과 가정부 사이에서, 안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칭형태를 사용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3편의 영화를 분석한 결과, 스페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나이와 지위가 비슷한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내에서는 친칭 형태가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 3편의 포르투갈과 브라질 영화를 분석한 결과, 포르투갈에서는 친한 직장 동료 사이에서 친칭형태인 *tu*보다 존칭형태에 가까운 *você*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친소 관계가 있는 이웃들 간에는 존칭형태인 *o senhor*을 사용하는 양상을 발견하였다. 반면 브라질 영화를 분석한 결과, 존칭형의 사용 빈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처음 보는 대화자간에도 친칭형태인 *você*를 사용함을 확인하였다.

설문지와 영화 분석 결과를 통하여 동일한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화자들은 친칭형태의 2인칭 대명사를 선호하며, 포르투갈과 멕시코의 화자들은 반대로 존칭형태의 2인칭 대명사를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지도를 설정할 수 있다.



지도1. 친칭형과 존칭형 2인칭 대명사의 사용 빈도에 따른 지역별 분포도

5. 나가기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호칭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시작하기 위해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이 호칭어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

기 위해 적절한 호칭어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잘못된 호칭어의 선택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의 오해를 사기도 쉽다.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적 장치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화자의 성별, 나이, 직업 그리고 청자의 성별, 나이, 사회적 위치뿐 만 아니라 대화자간의 친분 그리고 대화 내용 또는 상황에 따라 호칭어의 선택은 달라진다. 언어는 그가 속해있는 사회구조의 특징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므로 호칭어 역시 한 나라의 복잡한 사회 구조와 그 나라가 지닌 독특한 문화가 녹아있다. 또한 언어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자주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언어가 변함에 따라 호칭어의 사용 또한 시대의 변함에 따라 예전과 달라졌음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사이에도 지역적 요인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실제 사용되는 언어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르인 영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공손성] [-권력] [+연대감]	[+공손성] [+권력] [+연대감]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표3. 스페인과 포르투갈어의 2인칭 대명사 사용 체계

동일한 상황을 비교하였을 때, 스페인,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친칭형태의 대명사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포르투갈과 멕시코는 존칭형태의 호칭어가 더 많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공손성과 권력 그리고 연대감을 함께 분석하였을 때, 표3과 같이 스페인,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공손성과 권력보다는 연대감이 호칭어 선택에 있어 더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반대로 포르투갈과 멕시코는 연대감보다 공손성과 권력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손성과 권력은 비례관계이며, 두 요소와 연대감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석 이전에 설정한 가설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는 로망스어에서 파생된 언어이므로 2인칭 대명사의 사용법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분석 결과에서 두 언어의 사용 체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스페인과 멕시코의 2인칭 대명사 사용법이 서로 다르다면, 포르투갈과 브라질 역시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포르투갈과 브라질의 사용법 체계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서로 상반된 사용 체계를 보였다. 다시 말

해, 스페인과 브라질의 사용 체계가 유사하였으며, 포르투갈과 멕시코의 사용 체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셋째, 중남미 국가들은 동일한 대륙에 위치하므로 호칭어 사용 체계가 유사할 것으로 보았는데, 설문지와 영화를 분석한 결과,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서로 상반된 사용 체계를 보였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사용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증명들을 통하여 각 나라의 호칭어 사용 체계를 살펴 보았으며, 언어별 그리고 지역별 호칭어 사용 양상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근접한 지역에 위치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호칭어 사용 형태는 상이한 체계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설문지의 수가 적고, 각 국가간의 설문지의 수와 변인 요소가 고르지 못하여 분석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언어간, 국가간의 비교가 동시에 이루어진 연구로써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도이며,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적 연구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본 연구가 유의미하다고 본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분석 자료들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호칭어 사용 체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호칭어; 2인칭 대명사; *tú, usted; você, o senhor*

학 번 : 2012-20029